

1. 프롤로그: 커피의 역사
2. 생두에서 커피로-맛있는 커피 만들기
3. 커피와 커피 재배지
4. 루왁커피와 피베리카피
5. **리조트 커피플랜테이션 투어***
6. 에필로그: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리조트 커피 플랜테이션 여행(Resort Coffee Plantation Tour)

자바(Java)는 오래 전부터 쌀농사가 성행되던 섬으로서,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인도네시아의 사실상 중심이 되는 섬으로 적도이남 5도에서 10도 사이, 동경 105도에서 110도 구역에 위치한 열대지역이다. 240년간의 기나긴 네덜란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국으로 통합된 수마트라, 칼리만탄(보루네오), 슬라베시, 발리, 롬복, 쉰바와, 플로레스, 쉰바, (서)띠모르 그리고 거대한 파푸아 섬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이리안자야 등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쳐 적도를 횡축으로 크고 작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적도의 제국, 인도네시아(Kawasan Nusantara)는 전세계의 육지를 적도를 횡축으로 줄여서 몰아놓은 형상을 갖는 큰 영토를 가진 나라이다.

1680년 파타피아(자카르타)의 총독이었던 판 호룬 제독이 예멘의 항구인 모카로부터 커피 묘목을 들여와(암스테르담으로 4그루를 밀수하여 그곳 온실에서 키우던 것을 이식했다는 설도 있음) 재배를 시작한 이래로 자바 섬은 쌀 경작보다는 대단위의 커피 플랜테이션의 경영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JAVA Coffee라는 또 하나의 대명사가 생겨날 정도로 근세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주요 커피 공급처가 되었다. 이것은 종래 암스테르담의 상인들이 예멘의 모카를 통해 수입한 '아라비아 커피'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던 방식에서 직접 식민지에서 경작하여 유럽시장에 팔아, 마진의 극대화를 이뤄낸 것은 물론, 산지를 선별하여 품질을 선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듀싱과 마케팅의 전기를 갖기에 이른 것이었다.



헤이즈가 잔뜩 낀 자카르타(파타피아)의 오후. 자바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와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역시 경쟁적으로 고무된 동기를 가지고, 동

방의 향신료 붐 이후 아랍제국에만 의존하여 마실 수 있었던 ‘향기로운 각성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무력을 앞세운 침략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점령한 식민지에서 각자 나름대로 **아라비아의 선물** 즉 아라비카 커피를 자급할 터전을 닦아 내게 된 것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다 그리하여 커피재배의 최적지에 많은 플랜테이션이 형성되어 나름대로 명품 커피의 호적지로 등재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일가체페(Yirgacheffe), 수마트라 만델링, 과테말라의 안티규아,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하와이 섬의 코나(Kona) 농장도 있고 브라질의 동남부 대단위 농장 그리고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이나 쿠바의 크리스털 마운틴 등 유명 고산지까지 그 맛의 차이만큼이나 서로 다른 문화를 보여주는 커피 재배지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리조트를 겸한 학습효과를 맛보며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기분 좋게, 편한 마음으로 다녀 올만한 **커피 플랜테이션**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명품 커피가 생산된다고 해서 명승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므로, 우선은 플랜테이션의 원조 격인 자바커피의 산지로서 가 볼만한 지역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여기 소개되는 로사리(Losari)라는 리조트 호텔은 품질이 우수한 로부스타 커피농원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동서로 길게 늘어져 있는 자바 섬 중간 허리의 북쪽에 있는 스마랑(Semarang)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남쪽으로, 옛 수도인 족자카르타(Yogyakarta)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도 올라있는 ‘보르보도르 사원’을 지나 계속 남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산마루(해발 905m)에 위치한 단아한 커피 농원을 만나게 된다.



로사리 리조트 호텔의 후론트 데스크 입구

시간 초월한 고즈넉한 별세계의 풍경

초입의 체크인 카운터를 겸한 대문을 통과하여 리셉션 룸에서 잠시 방 배정을 기다려, 짐을 푸는 동안, 자띠(티크)나무와 유럽식 디자인의 쿠션이 곁들인 의자에 앉아 망고와 파인애플,

코코넛, 난장이 바나나 그리고 카탈라(양란) 한 스템이 꽃힌 열대과즙을 한 잔 마시고 나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게 되는 현지 공항대합실과 지방 국도의 후텁지근하고 먼지 날리는 풍경을 돌아 올라오는 긴 여정에 누적된 피로는 한결 가볍게 풀린다.

이어서 간결한 구내 시설을 둘러보고 준비된 스파(Spa)에 들어가 땀이 찬 피부 깊이 남은 소금기를 쏙 빼어내는 온탕과 쿨~한 마무리, 시원한 물 목욕을 마친 다음, 천천히`여유 있게 오래도록 부드럽게 진행되는 발 마사지 서비스를 즐기노라면, 당신은 이미 여행 중에 기착지와 대합실에서의 기다리던 지루함과 녹녹한 습기로 짜증났던 - 유쾌하지 않았던 기억들과 간간이 머릿속에 떠올라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본국에 남겨 놓은 일상의 걱정거리는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로비 앞 정원에서 보이는 다섯 개의 화산들은 열대 식물과 항상 새롭게 피어나는 색색의 꽃들과 어우러진, 마치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고즈넉한 다른 행성의 풍경 속에 지구에서 온 우리 일행을 그려서 넣어 준 듯, 문득 몇년 전쯤에 또 한 차례 분출을 한 ‘메라피’ 화산(Merapi, 해발 2,914m)과 멀리 둘러선 휴화산(Megelang는 해발 3,371m, Mebabu는 해발 3,142m)들을 보노라면 쥐라기 공룡의 활동시기를 연상시키는 열대식물에 둘러싸인 잔디정원은 마치 원시와 오늘날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음식은 열대산물이 가미된 유럽식 샐러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특유의 닭요리(아얌)와 코코넛과 생강을 넣고 만드는 육류 및 특유의 후추와 고추향신료 맛으로 톡 쏘는 듯한 양념이 인상적이다.

이곳의 장점으로는 우선, 다른 지역 커피 플랜테이션 주변 숙박시설 수준이 인도네시아-국내



인의 사용에 맞추어 있는데 반해 이곳 '로스리'는 마치 자카르타 혹은 국제 관광지인 발리의 중-상급에 못지않은 서구식 시설과 위생적인 음식 메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잘 정돈된 길을 따라 농장 투어를 할 수 있으며, 호텔을 둘러싸고 있는 농장에서 직접 생산된 양질의 '로부스타'원두를 재래식 3~5kg/Batch 용량의 모터 장착 직화-로스터로 볶아서 즉석 시식용과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견학과 시음을 할 수 있다.



재래식 로스터(Roaster)와 야자 흑설탕 졸이는 장비(옆의 큰 냄비).

특히 같은 농장에 자생하는 사탕야자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달여 만든 '흑설탕' 한 점과 볶은 커피 세 알갱이. 그리고 500밀리 리터 짜리 페트병의 생수(AQUA)가 제공되는- 이곳 특유의 '커피 완전 음용법'이 이색적이어서 깊은 인상을 갖게해 준다.

깊고도 구수한 바디 테이스트가 부드럽게 깔리는 열대 특유의 흙 맛으로 더운 지방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로부스타' 원두를 볶아서 분쇄한 것을 설탕과 함께 넣고 더운물을 부어서 가라앉혀 먹는 게 산지부근 아시아 존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브랜드로 이미 많이 알려진 우수한 커피회사들이 인스턴트 제조용으로 대량으로 사용하는, Ek-1, 수마트라 남단 람뽕 (Lampung) 로부스타 그리고 베트남 로부스타에 비해 비교적 알이 굵은 이곳 자바 '로부스타' 원두는 중/강 배전으로 짹쓰름하면서도 개운한 뒷맛이 혀 깊숙이 남는다.

직화 로스터로 강배전으로 볶아낸 이곳 커피를 조금 잘게 갈아서 걸쭉하게 한 대접 데운물에 타서 마시면,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새콤하고 아린 카페인 효과의 맛으로 정신이 번쩍 든다.

아니면, 잘 볶아진 커피 알갱이 세알을 천천히 씹은 다음, 위에 소개한대로 흑설탕 한 개를 배급받아 살짝 녹여 먹노라면(찬 페트병 물을 조금씩 같이 마시며), 이마와 귓볼 뒤로 배어나는 땀을 잠시 잊게 된다. 그것이 얼음에 채워져 있던 페트 병 물의 덕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색다른 경험을 한 관광객들은 앞 다투어 재래식 포장으로 되어있는 Losari 표 종이팩에 담긴 이곳 한가지 종자로 만든 커피-로부스타 볶음-원두커피를 한두 개씩 사게 된다. 그리고 로스터 바로 옆에서 냄비에 졸여 내는, 습기가 채 가지지 않은 사탕야자 긴잎사귀 추출 흑설탕 (Diced)도.

보르보도르 · 족자카르타 발리여행도 추천코스

한국에서 출발하자면,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까지 약6시간 반 정도 걸리는 직항 국적기를 이용하는 것과 홍콩,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등을 거치는 외국 항공사노선으로 자카르타-스마랑 노선은 인도네시아 국내선으로 비행시간 약 45분 정도다.



발리 해변 힌두교 사원



스마랑에서 로사리 가는 도중에 있는 돌조각 공방

또는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발리의 덴파사(Denpasar)로 직항하여 발리 전체를 한 2일 정도 관광한 후에 인도네시아 국내선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를 둘러보고 여유 있게 스마랑(Semarang)으로 이동하며, 소위 이태리산 가구의 하청공장들이 산재한 고을을 지나며 눈요기와 가격흥정을 해보는 것도 또다른 쓸쓸한 재미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자카르타에서 발리를 생략하고 바로 스마랑 공항으로 날아가서 '보르보도르 사원'을 관광하며, 남쪽으로 산을 넘어 마치 한국의 경주 같은 위상으로 대접을 받는 도시, 족자(족자카르타를 흔히 현지에서는 이렇게 부른다)로 가는 도중에 이곳에 들러서 하루나 이틀 머물면 좋을 것 같다. 마치 서구인들을 위하여 그들 자본으로 건설해 놓은 것 같은 관광지 발리(Bali)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치 않으나 '족자카르타(Yogyakarta)'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곳은 자바의 옛 수도로서 고급 교육기관들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회합도 많이 열리는 인도네시아의 정신적인 본산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이곳을 방문해 보면, 특유의 나염직물인 바틱과 자티(티크나무 가구) 목각 공예, 진지하게 연주하는, 단조롭지만 전혀 급하지 않은 리듬으로 울려나오는 브론즈의 음향(여러 개의 종으로 이루어진 전통 타악기), 그리고 화산암 석공예 등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수준 높은 도시여서 인도네시아 2억4000명의 총인구 중 80% 이상이 모여 사는 자바 섬의 전통적인 주류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이때쯤이면 자카르타의 도심에 있는 'Plaza Indonesia', 'Pasaraya' 등 백화점에서 파는 토산품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발리를 먼저 다녀왔다면 그곳보다 현격하게 저렴한 물가와 토산품 가격에 "여기 와서 살걸.." 하며 조금 후회할 일도 있을 것이다.

